

더불어민주당

책자형선거공보

전라남도의회의원선거 신안군 제 1선거구
지도·임자·증도·압해·자은·압태

농어민과
함께 걷어가는

튼튼한
도의원



도의원 후보

김문수

1

농어민과 함께 걷어가는 튼튼한 도의원

김문수는 경험과 실력을 갖쳤습니다

- 준비되지 않은 아마추어에게 도의회를 맡길 수 없습니다.
- 신안군정과 도의회 경험을 갖춘 일잘하고 능력있는 재선 도의원이 군민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김문수는 검증된 후보입니다

- 느끼하고 재물에 욕심있는 사람을 철저히 검증하지 못하면 신안군민이 불행해 집니다.
- 신안군의원재선, 도의원 초선 임기를 통해 깨끗하고 철저히 군민이 검증한 김문수!

김문수는 능력있는 후보입니다

- 사업과 이권에 연관되어 도의원이 되고자 한다면 이권업자를 공인으로 당선시켜주는 불행한 일이 발생합니다.
- 김문수는 58명의 도의원과 도청공무원, 도지사가 인정한 농·어업 전문가 입니다.



김문수는 더 높은 도덕성과 정직함으로 군민여러분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I have a dream

김문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군민이 **농·어업 소득의 여유가 있는 신안군**이라는 지역사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지방정부를 통해 농축어민의 삶을 바꿀 수 있게 그 기초를 놓아가는 사람!

확실한 지원이 필요할때

- 김문수는 신안군민과 농어민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 전국 최초 소규모 20ha 들녘 경영체 예산을 도비로 편성 하여 21년 첫 예산을 집행 하였고, 딸기 고설재배 노지스마트시설등 많은 신규예산을 편성 진행 하였습니다.
- 신안의 농어업 5.6위!! 김문수는 위상에 걸맞는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새로운 소득의 활로가 필요할때

- 최저가 농산물 지원 조례를 통한 수입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안정적인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 해상풍력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압해 복룡 ONM 센터 산업단지, 지도 감정리 해상풍력기자재 산업단지 확정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농·축·어업의 4차산업혁명을 이끌 **예산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증도·자은·암태에 영산강 농업용수 공급을 통한 항구적 농업을 지속
할 수 있도록 2026년까지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전남도와 의회가 인정한 농·축·어업 전문가 김문수

WTO로 무너진 신안의 농어촌

메가 FTA가 농어촌을 변화 시키고 있습니다. 농어촌이 뿌리채 흔들립니다.

RCEP은 국회에서 승인되었고 CPTPP는 정부에서 가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57개국과 FTA를 체결하였고 메가FTA는 협의중에 있습니다.

무너진 신안 농촌경제 그 틈새를 김문수가 예산과 정책으로 지원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조각나고 있는 농심!! 농사는 풍년인데 농심은 흉년!! 위기에서있는 농·축·어업소득 어디서 찾아야하는가!!

- 지금 신안에는 많은 민간적 자본 보조 도예산 확보가 농·축·어업소득을 담보 합니다.
- 소규모 400평 이상 스마트 시설하우스를 통한 소득작목전환을 통해 농업소득을 배가 하도록 농업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김문수는 농·축·어업과 관광소득을 위한 **깊이부터 다룹니다**

능력있는 검증된 도의원 김문수는
진짜 지역 일꾼입니다.



- 농업용수 걱정없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군민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 기후위기로 농업용수는 더욱 더 부족합니다. 물 부족 국가, 물부족 지방자치단체에서 벗어나 항구적으로 논·밭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 지도읍 2027년 농업용수 공급, 압해읍 2028년 공급, 증도·자은·암태는 2026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영산강 농업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서삼석의원과 함께)
- 현재 신안군이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관광 콘텐츠 위에 농·어업을 특화 시킨 예산을 확보 하여 농가 소득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 중·소농 및 가족농의 맞춤형 예산을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이 돌아오는 소득이 있는 농·어업 정책과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약속은 모두가 하지만 실천은 오직 김문수 만이 할 수 있습니다.

무등일보

2021년 12월 09일(목) 종합 01면

국가도 못한 농산물최저가격보장 ‘농도’ 전남에선 도입할 수 있을까?

김문수 도의원 신규 70억 수립요구 전남도 “유사한 제도 시행 중” 난색. 예결위 부정적...계수조정 최종 결정

중앙정부에서도 도입하지 못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전남에서 도입할 수 있을까.

‘전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에 따른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는 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에 전남도가 난색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예산을 세울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김문수 전남도의원(민주당, 신안1)은 8일 열린 예결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을 위한 예산 70억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관련조례 대표 발의 등 그동안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요구해온 김 의원은 “농업농촌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생활이 가능한 농업소득 보전을 위해 4년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왔으며 이미 조례까지 수립돼 있다”며 “농축산식품부에 관련 예산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전남도는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지원 제도 등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다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정부에서도 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농산물최소가격보장제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농산물 가격차보장제도’가 이미 시행

되고 있는데다 도 자체적으로 농산물수급안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으로 전남에서 자체적으로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연간 1천350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돼 도입은 어렵다”며 “정부에서 제도를 먼저 도입해야만 관련예산을 수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사업비 70억원 반영 요구에 다른 예결위원들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예결위원은 “이미 관련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다 올해 사업비 대부분이 불용처리될 상황에서 별도로 내년 예산에 70억원을 세운다는건 어렵지 않겠냐”며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예결위원도 “전북과 충남 등에서 도입한 최저가격 보장제와 전남은 상황이 다르다”며 “대상품목인 마늘, 양파, 고추, 대파, 배추, 가을 무 중 대파 등 4개 품목의 주산지인 전남이다. 정부의 지원 없이 제도를 먼저 도입한 뒤 실제로 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어떻게 할 건지 대안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차영수 도의회 예결위원장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는 데다 예결위에서 제도 도입을 위한 예산 수립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계수 조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농·축·어업과 농어촌 관광의 미래를 준비하는 김문수의 약속입니다.

- 1 지방도 805호선 위험도로구간 개선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지도, 증도, 자은, 암태)
- 2 신안해저유물 전시관 건립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힘쓰겠습니다.
- 3 영산강농업 용수 공급사업(증도, 자은, 암태)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 4 중부권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자은, 암태 2024년 공급)
- 5 400평 이상 스마트 시설 하우스를 공급하여 소득구조를 개편하겠습니다.
- 6 대파농지 객토지원 사업을 통한 영농비 절감을 확대하겠습니다.(자은, 임자)
- 7 마을 하수처리시설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농축어업과 소득관광의 성공시대

김문수

학력

- 목포 덕인중 · 고등학교 졸업
- 목포과학대학 사회복지과 졸업

경력

- 제11대 전라남도의회 의원(현)
 -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현)
 - 농수산위원회 위원(전)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전)
 - 한빛원전특별위원회 위원(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현)
- 제4대 신안군의회(산업건설위원장)(전)
- 제5대 신안군의회(운영위원장)(전)
- (사)한국농업경영인 신안군연합회 7대회장(전)
- 증도농협 감사(전)
- 민주당 신안군 지역위원장 대행(전)
-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더불어민주당

튼튼한 도의원 후보

김문수

1